

다산 정약용의 이상주거론

정민*

〈차 례〉

1. 서언
2. 18, 19세기 원림문화와 다산의 이상주거론
3. 다산 이상주거론의 실제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여러 글을 통해 이상적인 주거에 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18, 19세기 조선에서는 이상적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웰빙 추구의 한 흐름이었다.

문인 학자의 주거공간과 그 주변은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 다산은 이상주거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서울의 좁은 집에서 뿐 아니라, 귀양지에서도 자신의 주거를 가꾸고 꾸미는데 큰 정성을 쏟았다. 주거에 알맞은 포치와 국세, 집안 내부의 배치 및 집 둘레와 주변 외곽의 구성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남겼다.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 후기 지식인 이상주거론의 제 양상을 살폈다. 자신이 꿈꾼 이상적인 주거 공간의 모습이 실제와 상상 속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구체화 되고 있다. 그 핵심은 복잡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과 자연 친화적 생활, 내면 공간의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산도 자신의 이상적 주거론을 여러 글에서 밝혔는데, 주거 공간의 위치 설정과 내부 구성, 나아가 주변과 외곽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

* 한양대 국문과 교수

능한 공간 구성을 선보이고 있다. 또 그곳에서의 일상과 가게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도 대단히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이상 주거론은 다른 지식인들의 경우처럼 관념적 이상론에 머물지 않고, 자족형 주거론이라 부를 수 있을만큼 경제적 자급력까지 갖춘 것이었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이상주거론, 제항상유인첩, 원림문화, 원포 경영

1. 서언

18, 19세기 조선에서는 이상적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논의가 유행처럼 번졌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웰빙(Well-being) 추구의 한 흐름이었다. 이 글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여러 글을 통해 이상주거에 관한 그의 생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¹⁾

문인의 주거공간과 그 주변은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 다산은 이상주거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여러 글에서 반복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서울의 좁은 집에서 뿐 아니라, 귀양지에서도 자신의 주거를 가꾸고 꾸미는데 큰 정성을 쏟았다. 주거에 알맞은 포치(布置)와 국세(局勢), 집안 내부의 배치 및 집 둘레와 주변 외곽의 구성, 그리고 그 속에서 영위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남겼다. 이들 글 가운데 『유거론(幽居論)』을 포함한 몇 편 글은 다산의 시문집에도 누락된 일문(佚文)들이다. 본고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되는 글도 몇 편 포함된다.

이들 글을 분석하여 우리는 다산이 꿈 꾸는 이상적 전원생활의 모습을 재구성해내고, 지향 가치와 심미(審美) 의식을 들여다보며, 그 현재적 의미를 음미해볼 수 있다. 다산의 이상주거론은 여타의 지식인들이 꿈꾼 관념적 이상론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자족형(自足型) 주거론(住居論)이라 부를 수 있을만큼 경제

1) 필자는 그간 다산 정약용의 이상주거에 관한 사고를 담은 몇 편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정민, 「다산의 평생구학론」, 『다산학』(2009. 12, 다산학술문화재단), 81~110면; 「다산의 초당경영과 공간구성」, 『문헌과해석』 39호(문헌과해석사, 2007. 여름호), 13~32면; 「새로 찾은 다산의 산거잡영 24수」, 『문헌과해석』 42호(문헌과해석사, 2008. 봄호), 11~28면.

적 자급력까지 갖춘 대단히 구체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이점에서 경제 관념이 배제된 일반 도학자들의 관념적 주거론이나, 18, 19세기 문인들의 심미적 주거론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2. 18, 19세기 원림문화와 다산의 이상주거론

18세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문화가 발달하면서 전원의 삶을 동경하고 도시를 벗어나 전장(田莊)과 별서(別墅)를 운영하며 삶의 여유를 회복코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들은 빼어난 승경(勝景)을 찾아 정원을 가꾸고 원에 탐닉하며 도시 생활에 지친 심신을 위로 받았다. 경제적 여건 등 현실 문제로 실현이 어려울 경우, 관념 속 유희를 통해 상상 속의 정원을 꿈꾸며, 그 구체적인 배치를 글로 남기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서울 생활은 관직에 올라 국가의 녹봉을 받는다 해도, 예외적 경우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가계 운영이 불가능했다. 정약용은 이성화(李聖華)에게 준 글에서 “서울은 뭇나무가 귀해서 겨울에는 말뚝을 태우고 개가죽을 입어 난방을 한다. 그래서 늙으면 가래기침이 나서 고질병이 된다. 부인네가 물정을 몰라 서울에 있다 보면 반드시 고리채를 얻어 쓴다. 남자가 몇 년간 벼슬살이를 나가도 그 1년의 비용을 능히 갚을 수가 없다. 벼슬하는 것이 이익이 안 된 지가 오래다”²⁾라고 하여 서울 생활의 어려움을 말했고, 또 벼슬에서 밀려나 낙향하던 이인행(李仁行) 같은 이는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부터는 서울 집에서 한질(寒疾)에 걸려도 땀도 내지 못하는 탄식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른 것이야 어찌 죽히 말하겠습니까?”³⁾라고 하여, 벼슬에서 밀려난 것이 서운하지 않고, 오히려

2) 정약용, 「送李聖華將歸序」: “京城薪貴, 冬日燒馬通薦犬糞, 以取煖. 故到老必發咳嗽錮陰之疾. 婦人不曉事, 在京城必用子貨錢. 男子數年游宦, 不能歸其一年之用. 仕之不利也久矣.”

3) 정약용, 「與丁美庸」: “今而後, 得免京邸, 遇寒疾不汗之歎矣, 他何足言.”

려 서울의 찬 방에서 더 이상 기침하며 벌벌 떨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 외중에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가 성업 중이었다. 생계가 막연했던 몰락 양반들은 집안의 구물(舊物)이나 서책을 전당잡히거나 고리채를 얻어 겨우겨우 끼니를 잇는 형편이었다.

삶의 외양이 척박할수록 이상적 주거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복잡한 도시 생활은 전원적 삶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 열망을 가속화시켰다. 이 시기 각종 문집에는 다양한 명칭의 정원들이 수도 없이 나온다. 주인의 성씨를 딴 조원(曹園)·오원(吳園)·이원(李園)·서씨원(徐氏園)·남씨원(南氏園)·양원(梁園)·최씨원(崔氏園)·윤씨원(尹氏園)·남원(南園)·홍원(洪園)·강씨원(姜氏園)·유씨원(劉氏園)·안씨원(安氏園)·정원(鄭園)·허원(許園)·장씨원(張氏園)·김원(金園)·백씨원(白氏園)·상씨원(尙氏園) 등이 기록에 남아 있고, 정원을 대표하는 화목의 이름에서 끌어온 매죽원(梅竹園)·삼송원(三松園)·난원(蘭園)·이원(梨園)·율원(栗園)·칠송원(七松園)·백류원(百榴園)·오송원(五松園)·행원(杏園)·송석원(松石園) 등의 명칭도 보인다. 낙원(駱園)·동원(東園)·남원(南園)처럼 정원의 위치로 지은 명칭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의미를 취해 지은 화비원(和肥園)·솔경원(率更園)·진령원(眞泔園)·일섭원(日涉園)·소요원(逍遙園)·적취원(積翠園)·화개원(花開園) 등도 있다. 이 시기 도시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정원 가꾸기 열풍은 자신의 거처 안에 자연을 끌어들이어, 척박한 도시 생활에 찌든 삶의 여유를 회복하고픈 열망을 반영한다. 이전에는 보기 힘든 현상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정원 조성 붐이 경쟁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⁴⁾

집안 형편이 어려워 별도의 원림을 조성할 형편이 못될 경우는 상상 속의 정원이라 할 의원(意園) 또는 심원(心園)을 그려보기도 했다. 이에 있어 명나라 황주성(黃周星, 1611~1680)의 「장취원기(將就園記)」와 유사룡(劉士龍)의 「오유원

4) 본문에 제시한 여러 정원의 이름은 18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문집 총간에 수록된 문집에서 뽑아낸 것들이다. 관련 논의는 정민,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에 취미』, 한국한문화회, 2005.6, 35~77면을 참조할 것.

기(烏有園記)』, 대명세(戴名世)의 『의원지(意園志)』 등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⁵⁾ 이에 자극을 받아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구곡유거기(九曲幽居記)』, 유경종(柳慶種, 1714~1784)의 『의원지(意園志)』, 장혼(張混, 1759~1828)의 『평생지(平生志)』, 임득명(林得明, 1767~?)의 『의원행(意園行)』, 홍길주(洪吉周, 1786~1841)의 『원거념(爰居念)』,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귤산의원도(橘山意園圖)』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잇달아 창작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젊어서부터 정원가꾸기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도시에서 뿐 아니라 고향집과 귀양지의 처소에서까지 정원과 원림조성을 통한 이상주거의 실현에 힘을 기울였다. 귀양 오기 전인 서울 명례방 시절, 좁은 마당에 난간을 둘러 꾸민 정원에 대해 언급한 『죽란화목기(竹欄花木記)』와, 강진 유배시절에 유인(幽人)의 이상적 거처에 대해 묻는 제자 황상(黃裳, 1788~1863?)을 위해 써준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유거론(幽居論)』 등 여러 편의 글을 남겨, 자신이 구상하고 실천에 옮긴 이상주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밖에 자식과 제자들에게 준 여러 글에서도 그의 이상주거에 대한 견해는 계속 발견된다.

다산의 이상주거론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제황상유인첩』의 서두를 읽어 보자.

『주역(周易)』 중 이괘(履卦)가 무망(无妄)으로 변하는 효사(爻詞)에, “유인(幽人)이라야 정(貞)하고 길(吉)하다.”고 했다. 내가 이를 풀이하여 말했다. “간산(艮山) 아래, 진림(震林) 사이에서 손(巽)으로써 은둔(隱遯)하여, 천명(天命)을 우러러 순응한다. 혹 간산에 과실을 심고, 진림에 채소를 써 뿌려, 대도(大道)를 밟고서 탄탄히 걷고, 천작(天爵)을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석인(碩人)의 너그러움이니, 유인의 일이 길하지 아니한가? 돌아보건대 하늘은 청복(淸福)을 몹시 아낀다. 왕후장상의 존귀함과 도주(陶朱)와 의돈(猗頓)

5) 상상 속의 정원에 관한 논의는 안대희, 『18,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제 97호, 진단학회, 2004.6, 111~138면을 참조할 것.

頓)의 부유함은 거름 흙처럼 흩어져 버렸어도, 이괘(履卦) 구이(九二)의 길함은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옛 사람 중에 『장취원기(將就園記)』를 남긴 사람이 있다. 장차 나아가겠다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탐진의 황상(黃裳)이 내게 그 조목을 물어 오므로 내가 말해 주었다.⁶⁾

당시 다산은 제자 황상에게 『주역』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괘(履卦)를 강의할 때, 구이(九二)의 효사에서 “길을 밟음이 탄탄하다. 유인(幽人)이라야 끈고 길하다.(履道坦坦, 幽人貞吉)”라는 대목을 풀이하면서, 『주역』의 여러 구절에서 끌어와 간(艮)·진(震)·손(巽)괘의 의미를 되새기다가, 과실 심고 채소 가꾸며, 대도를 딛고 천작(天爵)을 즐기는 삶이야말로 유인(幽人)의 정길(貞吉)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다산이 이렇듯 유인(幽人)의 삶에 대해 얘기하자, 제자 황상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대답한 글이 바로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이란 글이다.

다산은 다른 글에서 청복(淸福)과 열복(熱福)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청복은 재야에서 가난해도 소박하고 운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열복은 벼슬길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열복을 얻은 사람은 많아도, 청복을 얻은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얘기했다.⁷⁾ 이밖에 다산의 친필로 전하는 『유거론(幽居論)』에도 구체적인 이상주거(理想住居)의 세목(細目)들을 잘 보여준다. 다산의 이상주거론은 심미성에 치중한 상상이나 관념적 도학주의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체성을 지닌 점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6) 정약용, 『제황상유인첩말』, 『국역다산시문집』, 6~224면 : “在周易履之无妄曰幽人貞吉, 余釋之曰: ‘艮山之下, 震林之間, 巽以隱遯, 仰順天命. 或蒔良菓, 或種震菜, 履大道而坦坦, 樂天爵以熙熙, 此碩人之寬也. 幽人之事, 不已吉乎? 願天甚惜淸福, 王侯將相之貴, 陶朱猗頓之富, 散之如糞土, 而履九二之吉, 世無聞焉. 昔人有記將就園者, 將就也者, 明未就也. 耽津黃裳, 請問其目, 余曰.’”

7) 정약용, 『병조참판오공대익칠십일수서(兵曹參判吳公大益七十一壽序)』, 『국역다산시문집』, 6~72면 참조.

3. 다산의 이상주거론

이제 다산이 여러 글에서 남긴 이상주거의 구체적 형상을 조목별로 살펴보겠다. 다산이 꿈꾼 이상주거의 형상은 단순히 관념에 머물지 않고, 다산 자신과 그 제자인 황상 및 초의 등에 의해 구체화되어, 한국 원림미학의 한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 조목은 주거의 터잡기와 국세(局勢), 그리고 주거 내부의 배치, 주거의 주변과 외곽에 관한 논의, 이어 가게 경영과 기거일상(起居日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포치(布置)와 국세(局勢)

이상적인 주거는 어떤 위치, 어떤 국면에 자리 잡아야 하는가? 다산이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제황상유인첩』의 언급으로부터 시작한다.

땅을 고를 때에는 모름지기 산 좋고 물 맑은 곳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강을 낀 산은 시내를 낀 산만 못하다. 마을 어귀에는 가파른 절벽이 있어야 한다. 바위를 끼고 조금 들어가면 시야가 확 트이면서 눈이 시원해져야 비로소 복지라 할만하다. 그 중앙에 국면이 맺힌 곳을 찾아 나침반이 정남향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서너 칸 띠집을 엮는다.⁸⁾

산수가 아름다워야 하나, 큰 강 보다는 작은 시내를 낀 산자락을 먼저 꼽았다. 강은 홍수가 나면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국면은 입구가 좁고 안쪽은 넓어 바깥에서 보면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구조를 선호했다. 외적의 침입에서 안전을 지키기 쉬워서 였을 것이다. 집은 그 정중앙에 자리 잡아 정남향으로 짓되, 크기는 초가집 서너칸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유거론』에서도

8) 이하 위 같은 곳 : “擇地須得佳山麗水。然江山不如溪山。洞門須有峻壁，側石稍入，開朗悅眼，方是福地。就中央結局處，構茆屋三四間，正子午盤針。”

“땅은 모름지기 산이 둘러있고 물을 안고 있는 곳을 가려, 남북의 방향을 바로 하여 초가집 너덧 칸을 짓는다.”⁹⁾고 했다. 같은 취지의 언급을 거듭 남김 셈이다. 입구가 좁은 분지(盆地)의 중앙에 산과 시내를 앞뒤에 둔 자리를 골라 정남향으로 초가집 3~5칸을 세우는 정도의 입지와 규모다. 한편 주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발택리지(跋擇里志)』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내가 거처를 정하는 이치를 논해보겠다. 마땅히 먼저 물과 땀거리를 살펴야 한다. 그 다음은 오곡이다. 풍속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은 산천의 빼어남을 본다. 먹을 물과 땀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의 힘이 빠진다. 오곡이 갖춰지지 않으면 흉년이 잦다. 풍속이 문(文)을 숭상하면 말이 많게 마련이다. 무(武)를 숭상하면 걸핏하면 싸운다. 이 곳을 숭상하면 백성들이 잘 속이고 각박하다. 한갓 힘만 쓰면 고루하고 사납다. 산세가 험하고 물이 탁하면 인물이 빼어난 자가 적고 뜻이 맑지 않다. 이것이 그 대강이다.¹⁰⁾

다산은 거처를 정하는 요건으로 수화(水火)와 오곡, 풍속과 산천의 아름다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좋은 거처는 마실 물이 풍족하고 땀감이 넉넉해야 한다. 다산은 위에서도 보았듯 산자락을 끼고 포근히 들어앉은 마을을 선호했다. 또 토지가 비옥해서 오곡이 잘 자라 먹거리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산자락 앞으로 꽤 넓은 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풍속이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는 마을, 걸핏하면 주먹다짐을 하는 사나운 동네, 남 잘 속이고 인심 각박한 고장은 거처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산수는

9) 『유거론(幽居論)』: “擇地須山回水抱, 正子午之鍼, 構草屋四五間.” 이 글은 다산 친필의 필사본으로 전한다. 모시에 먹글씨로 썼다. 필첩의 원 제목은 ‘야사(埜檮)’라고 적혀 있다. 야인의 사실(儼說)이란 뜻으로 쓴 듯 하나, 다른 사람이 쓴 글씨이고, 내용으로도 위 글의 제목으로 보기 어려워, 제목을 『유거론(幽居論)』이라 하였다. 현재 강진군이 소장하고 있다. 『다산시문집』에는 누락된 일문(佚文)이다. 최근 강진군에서 간행한 다산종합도록 『다산 정약용, 마파람이 바다 위에 불어』, 강진군, 2009, 88~91면에 원본의 영인이 실려 있다.

10) 정약용, 『跋擇里志』, 『다산시문집』 권14, 문집총간 281책, 307면: “余論生居之理. 宜先視水火, 其次五穀. 其次風俗, 其次山川之勝. 水火遠則人力誑, 五穀不備, 則凶年數. 俗尙文則多言, 尙武則多鬪. 尙利則民詐薄, 徒力作則孤陋而獷. 山川濁惡, 則民物寡秀拔, 而志不清. 此其大端也.”

마지막에 고려할 점이다. 산세가 지나치게 험하고 물이 탁해, 인물이 나지 않고 뜻이 맑지 않은 지역도 살펴서 가려야 한다.

요컨대 앞에는 시내가 흘러가고 뒤에는 적당한 높이의 산이 배경이 되어주며, 산자락에 안겨 탁 트인 너른 들이 있지만, 밖에서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곳, 계다가 풍속은 순후하며 산천이 맑고 깨끗한 곳이 이상적인 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조건이라고 꼽았다.

2) 주거 내부

이러한 입지가 충족되었을 경우, 주거 내부 공간의 배치는 어떠해야 할까? 『제황상유인첩』에 자세한 설명이 보인다.

순창에서 나는 설화지(雪華紙)로 도배를 하고, 문미(門楣)에는 엷은 먹으로 그린 황폭의 산수화를 붙인다. 문 옆에는 고목과 죽석(竹石)을 그리거나 시를 써놓는다. 방 안에는 서가 두 개를 놓아두고, 1천 3,4백 권의 책을 꽂는다. 『주역집해(周易集解)』·『모시소(毛詩疏)』·『삼례원위(三禮源委)』와 고서명화, 산경지지(山經地志), 그리고 성력법(星曆法), 의약 설명서, 군사 훈련 제도, 군기(軍器)의 법식 및 초목금어보(草木禽魚譜), 농정수리설(農政水利說)에서 기보(棋譜)와 금보(琴譜)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 갖춰둔다. 책상 위에는 『논어』 한 권을 피놓는다. 곁에는 화리목 탁자가 있는데, 여기에 도연명과 사령운, 두보와 한유, 소식과 육방옹의 시와 『중주악부(中州樂府)』와 『열조시집(列朝詩集)』 등 몇 질을 얹어 둔다. 책상 밑에는 오동(烏銅) 향로 하나를 놓아두고, 새벽과 저녁에 옥유향(玉蕤香) 한 판을 피운다.¹¹⁾

11) 정약용, 『제황상유인첩』: “匠治須極精巧, 用淳昌雪華紙塗飾. 楣上傅澹墨山水橫圖, 門旁畫槁木竹石, 或題小詩. 室中置書架二部, 挿架書一千三四百卷. 周易集解·毛詩疏·三禮源委及古書名畫·山經地志·星曆之法·醫藥之詮·陳練之制·軍資之式及草木禽魚之譜, 農政水利之說, 以至棋譜琴譜之等, 無所不具. 案上展論語一卷. 旁有花梨几子, 安陶謝詩杜韓蘇陸之詩及中州樂府列朝詩集等數帙, 案底置烏銅香爐一口, 曉暮燒玉蕤香一瓣.”

순창서 나는 눈처럼 흰 종이로 도배를 하고, 문미(門楣) 위의 좁은 여백에는 횡폭 산수도를 얇은 먹으로 희미하게 그려 놓는다. 문 곁에도 고목과 죽석을 그리고, 그 곁에 시를 지어 뜻을 기탁한다. 방안에는 책장 두 틀을 세워 1,300~1,400권의 각종 서책을 꽂는다. 학문의 이치를 탐구할 경학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실용서, 삶의 운치를 더해줄 예술서, 인생의 정리를 담은 각종 시집들로 구성된 장서들이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책상 아래 오동(烏銅) 향로에 하루 두 번씩 옥유향을 한판씩 피운다.

「유거론」에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이 있다.

흡손질은 아주 평평하게 해야 한다. 분지를 써서 겉면에다 이를 발라, 담묵으로 그린 산수도를 붙인다. 북쪽 벽은 조금 시원스럽게 해서 서가 두 틀을 안치고, 고금의 서적 5,6천 권을 보관한다. 법서와 명화는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좋은 거문고 한 장과 바둑판 하나, 박산향로 하나와 주나라 때의 술그릇과 한나라 때의 술을 각각 하나씩, 그리고 그 밖에 골동의 기물(奇物) 몇 개를 놓아둔다. 뒷방에는 매합(梅閣)을 하나 둔다.¹²⁾

앞서 본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장서의 숫자가 1,300~1,400이던 것이, 5,6천 권으로 늘었다. 그밖에 금(琴)과 바둑판 외에 중국의 청동기와 골동기물을 더 추가했다. 모두 삶의 운치를 더해주는 기물들이다. 이 언급은 좀더 희망사항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셈이다. 다음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만약 내가 몇 년간만 사면되어 돌아갈 수 있다면, 너희로 하여금 능히 몸가짐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효제(孝悌)를 숭상하고 도탑고 화목한 기풍을 짓들이며, 경사(經史)를 연구하고 시례(詩禮)를 담론하게 하겠다. 서가에는 3,4천권의 책을 꽂아두고, 양식은 1년쯤 버틸만

12) 정약용, 「유거론」: “朽鏗要極平, 用粉紙, 傅之外面. 貼淡墨山水圖. 北壁稍寬, 安書架二坐, 藏古今書五六千卷, 法書名畫, 無所不具. 畜名琴一張, 碁一枰, 博山爐一, 周彝漢鼎各一, 及佗古董奇物數枚. 曲房置梅閣一.”

하며, 원포(園圃)에는 빵과 마, 채소와 과일, 꽃과 풀, 약초 등을 심는다. 위치가 반듯반듯 가지런히 그늘을 드리운 것이 즐거워할 만하다. 마루에 올라 방에 들면 거문고 하나와 투호 하나가 있다. 붓과 벼루, 책상과 도서의 배치가 고아하고 정결해서 기뻐할만 하다. 이따금 손님이 오면 능히 닭을 잡고 회를 쳐서 막걸리에 채소를 곁들여 기쁘게 한 차례 배불리 먹고, 서로 더불어 고금을 오르내리며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폐족이라 해도 또한 장차 안목 갖춘 이가 흠모하는 바가 될 것이다. 1년 2년 세월이 점차 지나면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는 이것을 생각하도록 해라. 차마 이를 하지 않으려느냐?¹³⁾

역시 선비의 거처와 생활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이 글은 아버지 다산이 귀양 간 이후 스스로 폐족(廢族)이라 하여 자포자기 하려는 자식들을 맏게 나무란 내용이다. 방안에는 금(琴)과 투호(投壺)가 놓여 있고, 책상 위의 필연(筆硯)과 도서(圖書)는 우아하고 깨끗하다. 이런 삶을 유지해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산이 주거 내부의 꾸밈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서책이다. 그밖에는 평평하게 흙손질한 벽과 흰 종이로 도배한 벽면, 그밖에 삶의 운치를 더해주는 문방구와 오락도구 등이 더 있다. 호사스런 가구도 없고, 다른 값 나가는 물건을 따로 꼽지도 않았다. 소박하나 문이(文雅)한 삶, 다만 지적 탐구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서책만큼은 욕심을 부렸다.

3) 주거 주변

이제 마당과 그 주변의 구성과 배치를 살필 차례다. 역시 『제황상유인첩』의

13) 정약용, 「기양어(寄兩兒)」, 『국역 다산시문집』, 9~25면 : “使我而得數年間赦還, 使汝輩而能飭躬厲行, 崇孝弟風敦睦, 研窮經史, 談論詩禮. 捕架書三四千卷, 粟可支一年, 園圃桑麻蔬果花卉藥草之植, 位置井井, 蔭翳可悅. 上其堂入其室, 有琴一張, 投壺一口. 筆硯几案圖書之觀, 雅潔可喜. 而時有客至, 能殺雞切膾, 濁酒嘉蔬, 欣然一飽, 相與揚扞古今, 則雖曰廢族, 亦將爲具眼人所豔慕. 一年二年, 水雲漸逸, 有如是而不中興者乎? 汝其思之, 汝其思之. 忍而不爲是耶?”

언급이 가장 자세하다.

뜰 앞에는 가림벽 한 겹을 몇 자 높이로 세워둔다. 가림벽 안쪽으로 온갖 종류의 화분을 놓아둔다. 석류나 치자, 백목련 등을 각각 품격을 갖추어 놓아둔다. 국화를 가장 잘 갖추어야 하니 모름지기 48가지 명색은 갖추어야만 겨우 구비했다 할 것이다. 마당 오른 편에는 사방 수십 걸음 크기의 작은 못을 판다. 못 속에는 언뜻 수십 방울 싹고 붕어를 기른다. 따로 대나무를 갈라 홈통을 만들어 산샘물을 끌어와 못에다 댈다. 넘치는 물은 담장 틈새를 따라 남새밭으로 흘러들게 한다. 남새밭 정리는 맷돌처럼 평평하게 해서 마치 고인 물 같아야 한다. 구획을 갈라 네모지게 두둑을 만들어, 아욱과 배추, 파와 마늘 등을 종류별로 구별해서 서로 뒤섞이지 않게 한다. 모름지기 고무래를 써서 씨를 뿌린다. 싹이 터나올 때 보면 아롱진 비단 무늬 같아야 비로소 남새밭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외와 고구마를 심는다. 남새밭 둘레에는 매괴화 수천 그루를 심어 울타리로 만든다. 매양 봄여름이 바뀌는 계절이 되면 남새밭을 둘러보는 자가 매운 향기를 코로 맡을 수 있어야 한다. 마당 왼 편에는 사립문을 세운다. 흰 대를 엮어 사립을 만든다. 사립 밖은 산기슭을 끼고 있는데, 50여 보쯤 가서 바위 물가에 초가 한 칸을 세운다. 대나무로 난간을 만드는데, 누각 둘레로는 모두 무성한 숲과 울창한 대나무여서 가지와 줄기가 처마로 든다 해도 꺾어서는 안 된다.¹⁴⁾

뜨락의 공간 구성을 앞쪽과 오른편 왼편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뜰 바로 앞에는 향장(響牆), 즉 가림벽을 세운다. 높이는 몇 자 남짓으로 시야를 완전히 가리면 안 된다. 벽 앞에는 각종 화분을 세우고, 그중에서도 특히 국화를

14) 정약용, 「제황상유인첩」: “庭前起響牆一帶, 高可數尺. 牆內安百種花盆, 若石榴梔子罽陀之等, 各具品格. 而菊最備, 須有四十八般名色. 方是僅具也. 庭右鑿小池, 方數十武, 便止. 池中植芙蓉數十枋, 養鮒魚. 別剝篔簹竹作水筒, 引山泉注池. 其溢者從牆穴流于圃. 治圃須碾平, 如渟水然. 割之爲方畦, 蔡松葱蒜之等, 別其族類, 無相混糅. 須用碌礮下種, 苗生視之, 有斑斕文, 纔名爲圃也. 稍遠, 種瓜種甘藷, 繞圃植玫瑰累千株成籬. 每當春夏之交, 巡圃者得香烈觸鼻也. 庭左立衡門, 編白竹爲扉. 扉外緣山坡, 行五十餘武, 臨石澗, 起草閣一間. 用竹爲檻, 繞閣皆茂林修竹, 枝條入簷, 不須折也.”

우선해서 적어도 48종의 국화를 길러야 운치가 있다. 가림벽이란 공간을 분할하고 차단하는 담장이다. 외부에서 내부로 향한 시선을 차단하고, 그 앞에 화분을 세워 생활에 운치를 더하는 구실을 한다. 이에 더하여 내원(內園)과 외원(外園)의 공간을 분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옥호정도(玉壺亭圖)』에도 가림벽이 보인다.

뜰 오른쪽에는 작은 연못을 파서 연꽃 수십방을 심는다. 붕어를 길러 운치를 북돋운다. 물은 대나무 홈통으로 이어와 산샘물을 못에다 댈다. 물이 넘치면 작은 구멍으로 흘러 그 아래 쪽에 있는 채마밭에 들게 한다. 채마밭에서는 네모만 듯한 구획에 따라 각종 채소가 자란다. 제가꿈 다른 빛깔과 모양이 모자이크 무늬 같다. 조금 떨어진 텃밭에는 참외와 고구마 덩굴이 무성하다. 온 식구의 떡거리가 여기에서 다 나온다. 꽃 울타리를 만들어 밭 일 하는 중에도 꽃향기가 끊일 뉘 없다. 흰 대나무를 엮어 세운 울타리, 산기슭을 따라 어슬렁 걸어 물가에 세운 정자 하나. 인생의 운치가 더할 나위가 없다. 흥미롭게도 이 풍경은 다름 아닌 다산초당의 모습 그대로다. 다산은 제자인 황상에게 일러준 내용을 몇 년 뒤 다산초당에서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유거론』에서 뜨락의 배치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소 소략하나 취지는 앞서와 같다.

뜨락에는 목가산을 한 틀 안치 두는데, 기이하고 빼어난 뿔부리가 삐죽삐죽 솟고 구불구불 이어진 모양으로 만든다. 기이한 화초를 섞어 심는다. 가운데는 작은 못을 파서 연꽃을 심고, 잉어를 기른다.¹⁵⁾

석가산(石假山)이 아닌 목가산 한틀을 안치하라는 주문이 이채롭다. 다른 내용은 위와 비슷하다. 역시 연못을 파서 잉어를 기르게 했다. 못 속에서 유유자

15) 정약용, 『유거론』: “庭中安木假一坐. 奇峰秀巒, 作巒嶽, 蜿蜒之狀, 雜植奇花怪草, 於中鑿小池, 植芙蓉, 養游鯉.”

적 노니는 물고기를 보며 성품을 기르는 것은 성리학의 해묵은 화두 가운데 하나다.

다산은 주거 주변의 공간을 세분해서, 야트막한 울림벽으로 공간을 분할하고 각종 화분을 기르는 안뜰과, 연꽃을 심고 붕어를 기르는 연못, 그리고 연못에 잇닿아 담장 밖으로 이어진 채마밭과, 사립문과 근처 물가에 세운 휴식공간 등을 구분해서 배치했다. 거처 바로 곁의 연못은 유사시 화재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고, 연꽃과 물고기를 바라보는 즐거움과 채마밭에 공급할 수원(水源)이 되기도 하는 등 다목적의 포석이었다.

4) 주거 외곽

다산의 유거(幽居) 구상은 주거 내부와 주변에서 멈추지 않고, 좀더 광범위한 주변 지역으로까지 폭이 확장된다. 말하자면 주변의 임원(林園) 경영까지 염두에 두고 자급자족적 경제생활 영위가 가능한 구상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 대목에는 그곳에서의 아취(雅趣) 있는 삶의 풍경까지 묘사되어 있다. 먼저 볼 것은 역시 「제항상유인첩」이다.

시내를 따라 1백여 보 쯤 거리에 좋은 전답 수백 이랑을 장만해둔다. 매년 늦봄 지팡이를 끌고 밭두둑에 가서 못자리의 새싹이 일제히 푸른 것을 보면, 그 푸른 빛이 사람을 물들여 한점 티끌 세상의 기운이 없다. 비록 그러나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 또 시내를 따라 조금 떨어진 곳에 큰 방죽 하나가 있어 둘레가 5,6리쯤 되는데, 제방 안에는 부용과 토란, 마름과 가시연이 가득하다. 쪽담배 하나를 만들어 띄워 놓고, 달 밝은 밤만 되면 시호(詩豪)와 묵객(墨客)을 데리고 배를 띄워, 퉁소 불고 소금(小琴) 뜯으며 방죽을 서너 번 돈 후, 술에 취해 돌아온다. 제방에서 몇 리 되는 곳에 작은 절이 한 채 있고, 거기에 이름난 승려 한 사람이 있다. 능히 참선하고 설법도 하며 시를 즐기고 술도 잘 마셔 승가의 계율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따금 왕래하며 가고 머무는 정을 잇는다면 기뻐 하기에 족하다. 집 뒤에는 쪽 뺨은 소나무 몇 그루가 있어, 용이 옮겨쥐고 법이 나뉘는

형세를 짓는다. 솔 아래는 백학 한 쌍이 서 있다. 소나무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작은 채마밭 한 구역을 열고, 인삼과 도라지, 천궁과 당귀 등을 심는다. 소나무 북쪽에는 작은 사립문이 있어 여기로 들어가면 잠실(蠶室) 세 칸이 나온다. 여기에 잠박(蠶箔)을 7층으로 얹혀 둔다. 매일 낮차를 마신 뒤에 잠실로 간다. 아내에게 송엽주 몇 잔을 따르게 하여 이를 마시고 나서, 방서(方書)를 가지고 누에를 목욕시키고 고치실을 뽑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빙긋이 서로 웃는다. 이윽고 문밖에서 조정에서 부르는 조서가 왔다는 소리가 들려도 웃기만 하고 나아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이(九二)의 길함이다.¹⁶⁾

시내를 따라 집 아래 쪽으로는 수백 이랑 규모의 전답을 갖춰, 벼농사를 짓는다. 근처에 큰 방죽이 하나 있으면 더 좋다.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아 농사에 도움이 되고, 배를 띄워 놓고 마음 맞는 벗들과 노닐며 생활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산은 마음 나눌 벗으로 시호묵객(詩豪墨客)과 계울에 얽매이지 않는 명승(名僧)을 꼽았다. 다시 집 뒤에는 소나무 몇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짓고, 그 동편에 작은 채마밭을 두어 각종 약초를 재배한다. 또 솔숲 뒤편에는 3칸 잠실과 7층 잠박을 두어 누에를 쳐서 옷감을 짠다.

「유거론」에서는 같은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또 비옥한 밭 수십 이랑이 앞쪽에 있다. 늙은 종은 충성을 다해 부지런히 밭 갈고 씨 뿌리며, 때에 맞춰 김매고 수확한다. 어느새 겨울이 오면 쌀을 가지고 와서 바친다. 동산 가운데는 온갖 과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말린 매실이 떨어지지 않는다. 뽕나무 삼백 그루를 심어 그 잎이 이들이들하다. 안채 곁에는 따로 잠실 7칸을 지어 매 칸마다 7층씩을

16) 정약용, 『제황상유인첩』: “沿溪行百餘武, 得良田數百畝. 每晚春, 曳杖至田畔, 見秧針齊綠, 翠色染人, 無一點塵土氣. 雖然勿躬治也. 又沿溪行數弓許, 得大隄一面, 周可五六里, 堤中皆芙蓉菱芡, 造小舟一枚泛之. 每月夜携詩豪墨客, 泛舟, 吹洞簫彈小琴, 繞隄行三四遍, 醉而歸. 自隄行數里, 得小蘭若一區. 中有名僧一個, 能參禪示法, 嗜詩縱酒, 不拘僧律, 時與往還, 忘情去留, 斯足歡也. 堂後有徂徠松數根, 作龍拏虎攫之勢, 松下立白鶴一雙. 自松而東, 開小圃一區, 種人參桔梗江蘿山蘄之等. 松北有小扉, 從此入, 得蠶室三間. 安蠶箔七層, 每午茶既歇, 至蠶室中. 命妻行松葉酒數盞, 既飲, 持方書授浴蠶繅絲之法, 嫣然相笑. 既已開門外有徵書至, 哂之不就, 此即履九二之吉也.”

설치하여 잠박을 안친다. 중간에는 십자로 작은 길을 내어 다닐 수 있게 한다. 매년 누에 치는 달이 되면 집사람은 한 달 동안 머리도 빗지 못한 채 누에를 친다. 모름지기 비올 때 따라 고치를 헤아려 실의 크고 작음이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들보 위에는 고리를 달아 고치실이 위로는 고리 구멍에 이르고 아래로는 물레에 이르게 하되, 그 간격을 얻어서 바람이 말려주어 상하지 않게 한다.¹⁷⁾

농사는 직접 짓지 않고 하인을 시키고, 동산에는 각종 유실수를 심는다. 뽕나무 3백 그루를 심어 누에를 친다는 것은 앞에서는 빠진 내용이다. 잠실 내부의 묘사가 훨씬 더 자세해졌다. 다산은 『위윤윤경증언(爲尹輪卿贈言)』에서도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뽕나무 4,5백 그루를 심어, 두 살이 되면 곁가지를 쳐준다. 뒤엇킨 덩굴을 쏘아내고 웅이 진 것은 베어 버린다. 이렇게 하면 몇 해 못 가서 담장보다 키가 커진다. 따로 잠실(蠶室) 4,5칸을 지어, 칸마다 사방으로 터진 길을 낸다. 잠박(蠶箔)은 7층으로 만든다. 늘 쇠뿔을 대워준다. 서북쪽은 완전히 틀어막고 동남쪽으로 벌이 들게 해야 한다. 면화는 꼭 많이 지을 것이 없다. 다만 하루같이 정도로 그친다. 따로 삼과 모시를 심어, 아내로 하여금 봄여름에는 실을 짓고, 가을과 겨울에는 베를 짜게 한다. 부지런히 하면 실과 베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흡족한 마음이 생겨나, 게으르던 사람도 절로 부지런하게 될 것이다.¹⁸⁾

17) 정약용, 『유거론』: “復有沃田數十頃在前, 有老奴忠勤耕播, 以時耘穫, 不知及冬, 以米來獻. 園中百果咸備, 乾糧不絕. 有桑三百株, 其葉沃若, 於內屋之傍, 別構蠶室七間. 各設七層, 以安簾箔. 中出十字小街, 令可通行. 每當蠶月, 室人一月不梳纒之. 須計繭有率, 令絲大小不差. 梁上著鑽, 令絲上至鑽孔. 下而至紡車, 得以其間. 風乾不壞也.”

18) 정약용, 『위윤윤경증언』, 『국역다산시문집』, 8-5면: “種桑四五百株, 及二歲剗其附枝, 搯其蔓莖, 斲其擁腫, 不數歲過牆矣. 別構蠶室四五間, 每間爲街四達, 爲箔七層. 常以牛糞燒之, 西北全塞之, 唯東南納陽可也. 吉貝不須多, 唯一日耕便止. 別種蠶苧, 令妻春夏治絲, 秋冬績布. 勤則絲布充溢, 既然貪欣在心, 懶者自動也.”

다산은 거처의 앞쪽으로는 벼농사를 지을 수백 이랑의 논을 마련해두고, 여가서 나는 소출로 1년 양식을 삼았다. 집 뒤편에는 작은 채마밭에 각종 약초를 심어 가용(家用)으로 쓰고, 남는 것은 내다 팔아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 뽕나무 수백 그루를 심고 잠실을 꾸며 누에를 쳐서 그 실을 뽑아 옷감을 짜 의복 문제를 해결하였다. 면화와 삼과 모시도 따로 심었다. 글에서 제시한 내용이 물론 이상론이기는 해도, 다산은 관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를 실현에 옮겨 임원경제(林園經濟)의 실천적 모범을 보였다.

5) 가계경영과 기거일상

이제 마지막으로 유거(幽居) 공간에서의 가계 경영과 기거 일상에 대해 알아 보겠다. 처음 볼 글은 「우위윤혜관증언(又爲尹惠冠贈言)」이다.

조정에서 벼슬하는 사람을 ‘사(士)’라 하고, 들에서 밭가는 자를 ‘농(農)’이라 한다. 귀족의 후예로 먼 지방으로 유락하여 몇 대가 지나면 벼슬길이 마침내 끊어지고 만다. 오직 농사로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 것들을 기를 수가 있다. 하지만 농사란 것은 천하에 이문이 박한 것이다. 게다가 근세에는 토지세가 날로 무거워져, 농사를 많이 지으면 오히려 더 낭패를 보게 된다. 모름지기 원포(園圃)로 이를 보충해야 유지할 수가 있다. 진기한 과일을 심는 것을 ‘원(園)’이라 하고, 좋은 채소를 기르는 것을 ‘포(圃)’라고 한다. 집에서 먹기 위한 것뿐 아니라 장차 이를 팔아 돈을 만들기도 한다. 큰 고을이나 도회지 곁에 진기한 과일나무 열 그루를 심으면 한 해에 엽전 50궤미를 얻을 수 있다. 좋은 채소를 몇 이랑 기르면 한 해에 20궤미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뽕나무 40~50그루를 심고 누에 5,6칸을 기른다면 또한 30궤미의 물건이 된다. 매년 100궤미를 얻는다면 흠족 굶주리는 것을 구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가난한 선비가 마땅히 알아두어야 할 일이다.¹⁹⁾

19) 정약용, 「우위윤혜관증언」, 『국역다산시문집』, 8-3면 : “仕於朝者謂之士, 耕於野者謂之農. 貴族遺裔, 流落遐遠, 數世以後, 簪組遂絕. 唯有農事足以養老慈幼. 然農者天下之拙利也. 兼之近世田役日

원포(園圃) 경영의 당위를 설파했다. 원(園)은 과수를 심는 공간, 포(圃)는 채소를 기르는 채마밭을 말한다. 선비가 벼슬길을 떠나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원포를 경영하지 않고는 가계를 꾸려가기가 어렵다. 다산은 과수 재배와 누에치기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예상 이득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대부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인 「기양아(寄兩兒)」에서는 원포 경영의 당위를 한층 더 역설했다.

시골에 살면서 원포(園圃)를 가꾸지 않으면 천하에 버린 사람이다. 나는 국상(國喪)으로 바쁜 중에도 오히려 만송 열 그루와 노송나무 한 쌍을 심었다. 만약 지금 내가 집에 있다면 뽕나무가 수백 그루에 접붙인 배가 몇 그루요, 옮겨 심은 능금도 몇 그루는 되었을 것이다. 닳나무는 이미 밭을 이루었겠지. 옷도 이미 남의 밭두둑까지 뺏어나갔을 것이다. 석류도 벌써 여러 그루이고, 포도는 몇 시렁은 되었을 게다. 파초도 너댓 뿌리는 되었겠지. 쓸모없는 땅에는 버드나무가 대어섯 그루 쯤 될테고, 유산(酉山)의 소나무는 하마 몇 자는 자랐을 게다. 너희는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보았느냐? 너희가 국화를 심었다고 들었다. 국화 한 두둑이면 가난한 선비의 몇 달치 양식을 지탱할 수가 있다. 꽃을 보는 것뿐이 아닌 것이다. 생지황·반하·도라지·천궁 등속과 쪽풀과 꼭두서니 따위는 모두 마음을 쏘아야 한다. 채마밭을 정돈할 때는 모름지기 아주 평평하고 반듯반듯하게 해야 한다. 흠손질도 몹시 곱고 깊게 하여 가루처럼 부드러워야 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아주 고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종은 매우 널찍하게 심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욱과 배추, 무를 한 구역씩 기르고, 가지와 고추 등속은 각각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마늘과 파를 심는데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 미나리 또한 심을만 하다. 한 여름 석 달의 농사로는 외만한 것이 없다. 비용을 절약하면서 근본에 힘쓰고, 아울러 아름다운 이름마

重, 廣作彌令凋敗. 須補之以園圃, 庶幾焉. 樹之珍果謂之園, 藝之佳蔬謂之圃. 不唯家食是圖, 將粥之爲貨. 通邑大都之側, 珍果十株, 歲可得五十串. 佳蔬數畦, 歲可收二十串. 若兼種桑四五十株, 養蠶五六間, 亦三十串之物也. 得每年百串, 足以救飢寒. 此貧士所宜知也.”

저 얻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²⁰⁾

역시 생계형 원포 경영에 대해 말한 내용이다. 뽕나무를 길러 누에를 치고, 유실수를 심어 과일을 탄다. 종이 원료와 옷칠할 물감 마련을 위해 닥과 옷나무를 기른다. 재목으로 쓸 만송과 노송, 열매를 따먹기 위해 석류와 포도를 기른다. 운치를 복돋우려고 거처 앞에는 파초를, 빈 땅에는 그늘을 두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는다. 국화를 심으면 그것을 내다 팔아 경제에 큰 보탬을 얻을 수 있다. 생지황과 반하 등 귀한 약초와 쪽과 쪽두서니 등 붉고 푸른 물감 원료들은 특히나 경제 활동에 큰 자산이 된다. 땅은 쪽 고르게, 흙은 덩이가 가늘게 해서 분가루처럼 고와야 한다. 집에서 먹을 각종 채소도 구간을 나눠서 기른다. 마늘과 파는 특히 없어서는 안 된다. 미나리도 기를 만하다. 경제활동의 당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한 내용이다. 특히 국화 재배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임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다산은 이밖에도 여러 글에서 국화 예찬의 변을 펼친 바 있다.

다산은 또 『시학연가계(示學淵家誡)』에서 “장차 의식의 근원 같은 것은 다만 뽕나무와 삼을 심고, 채소와 과일을 기르는데 있다. 부녀자가 부지런히 길잡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다. 그밖에 이자돈을 놓거나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것, 그리고 약 장사 하는 것 같은 일은 모두 가장 악착스런 사람이나 능히 하는 일이다. 조금이라도 풍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본전마저 깎아 먹고 본업조차 상실하지 않는 자가 없을 터이니, 딱 끊어 단념토록 해라.”²¹⁾라고 하여 해야 할 일과, 해

20) 정약용, 『기양아』, 『국역다산시문집』, 9~23면 : “居鄉不治園圃, 天下之棄也. 吾於國喪奔忙之中, 猶種十株蔓松一雙栝. 使我至今在家, 桑數百株, 梨接者幾株, 林禽移者幾株, 楮已成田矣. 漆已延他隴矣, 石榴已數株, 葡萄已數架矣, 芭蕉已四五本矣. 不毛之地, 柳五六株矣. 西山之松, 已長數尺矣. 汝有一於是否. 聞汝種菊, 菊一畦足支貧士數月之糧, 不唯看花而已. 如生地黃半夏桔梗川芎之屬, 藍艷茜蒨之類, 俱可留意. 治圃須令極平極方正. 而治土極細極深, 鬆軟如粉. 落種須令極均, 立苗須令極疏. 如斯已矣. 葵一區, 菘一區, 蘿菈一區, 如紫茄辣椒之屬, 各宜區別. 然種蒜種葱, 最宜致力. 芹亦可種. 三夏之農, 莫如瓜. 節用而務本, 兼之得美名者, 此事也.”

21) 정약용, 『시학연가계』, 『국역다산시문집』, 8~31면 : “且如衣食之源, 唯種桑麻蒔蔬果. 婦女勤於紡績, 差可爲耳. 餘如放子母錢, 販買諸物, 及爲賣藥等事, 皆一等齷齪人所能爲. 稍有風味者, 未

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구분했다. 장사를 통해 이익 얻기를 엄격히 금하고,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적극 권장했다.

그렇다고 유거에서의 생활이 온통 이러한 경제활동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농사는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하인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아녀자들은 누에치기 등의 노동을 통해 가계에 기여한다. 주인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인은 이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는 한편, 학문에 몰두하고 때로 풍류를 즐기며 삶 속에 고아한 운치를 깃들이기에 힘써야 한다. 이때 이곳만을 따지는 속물적 삶으로 떨어지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은 「유거론」의 끝부분이다.

사방 수십 리에 고사(高士)와 운승(韻僧) 대여섯 사람과 맺어 벗으로 삼고, 매번 꽃 필 때면 서로 초대하여 운자를 내어 시를 짓는다. 술과 안주는 미리 갖추어 두어 번거롭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앞 시내의 물결이 깊은 곳에 상앗대 하나를 작은 거룻배에 매달고 대여섯 사람을 태운다. 매번 봄물이 막 불어날 때에 함께 배를 띄워 물결을 따라 오르내린다. 여울 위에 이르면 오구를 펼쳐 고기를 잡고 이를 버들가지에 꿰어 달빛을 안고 걸어서 돌아온다. 집사람이 일에 밝아 저녁밥을 먹으면서 실컷 즐긴다. 예전 동평왕 창은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했다. 만약 이러한 가운데서 선행을 쌓지 않는다면 덕이 또한 어찌 기쁘겠는가? 거처함에 공손히 하고 일처리를 공경하게 하며, 효우목인입훈(孝友睦婣任恤)의 여섯 가지 행실을 빠뜨림 없게 한다. 길흉의 큰 예법은 사방에서 취하여 법으로 삼는다. 궁한 벗과 가난한 친족은 내게 힘입어 도움을 받도록 한다. 혹 한 해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면 능히 힘을 내어 두루 구휼한다. 내가 살아 있을 때나 내가 죽은 뒤에나 살펴보매 어려운 기색이 없다. 겸손하게 낮추어 스스로를 기르며 뒷사람을 능멸하는 뜻이 없다. 근검으로 도를 지켜 자손이 우러르게 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오래도록 그 복을 보존할 수가 있다.²²⁾

有不消折本錢，喪其本業者，切須斷念。”

- 22) 정약용, 「유거론」: “四方數十里，結高士韻僧五六人爲友，每花時相招，出韻賦詩。有酒設預具，不煩叮囑。前溪演漾深者，一篙繫小刀，受五六人。每春水初肥，與之同泛，沿洄上下。至灘上設汕取魚，串之柳梢，乘月步歸。室人曉事，夕食盡歡。昔東平王蒼曰：“爲善寂樂。”若于此中，不積善行，

앞서 본 글과 마찬가지로 임원에서의 삶에 동반이 되어줄 벗으로 고사운승(高士韻僧)을 꼽았다. 이상적 주거를 실현한다 해도 이들 동반자 들이 있어야만 삶이 비로소 생기가 돌고 운치가 있게 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선행과 바른 행실이 쌓이고, 불쌍한 이를 돕는 구휼의 정신과 근검의 생활 태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청복(淸福)은 완성된다고 보았다.

다산은 이밖에도 「다산십이경서(茶山十二景序)」란 글을 남겼는데, 여기서도 생활 속에서 꾸려가는 일상의 아취를 상심락사(賞心樂事)의 의미에 얹어 묘사한 내용이 보인다. 문집에 없는 일문(逸文)이므로 자료 제시를 겸하여 전문을 인용한다.

장남호의 상심락사(賞心樂事)는 빈한한 선비가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본받아 마르چه고 줄여서 운치를 구할 뿐 그 사치스러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른 봄 매화꽃이 병글었을 때 유운각(蓀芸閣)에서 매화 향기 맡는 모임이 첫째가는 좋은 자리이다. 두 번째는 취성재(聚星齋)에서 홍도화(紅桃花)를 보는 것이요, 세 번째는 영풍오(迎風塢), 즉 바람맞이 언덕에서 모란을 감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만향단(蔓香壇)에서 수구화를 보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치자원(柅子園)에서 작약을 감상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고사곡(枯查谷)에서 새 죽순을 보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울포(栗浦)의 앞 항구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월고지(越姑池)에서 달밤에 배를 띄우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백련사(白蓮寺)에서 단풍 구경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석문(石門)에서 맑은 물가에 임하는 것이요, 열한 번째는 합장암(合掌菴)에서 눈 구경하는 것이며, 열두 번째는 수정사(水精寺)에서 얼어붙은 대나무를 보는 것이다. 매 차례마다 반드시 간략하게나마 고기 인주를 갖춘다. 술은 몇 순배만 하고 그치고, 악기는 단금(短琴)과 통소로 한정한다. 손님 중에 시율(詩律)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자를

德亦何足愉也。居處恭執事敬，孝友睦婣任恤之行，靡有缺闕。吉凶大禮，四方取以爲法。窮交冷族，賴有沾漬。或歲事大饑，能出力周振，於我乎館。於我乎產。察之無難色，謙謙自牧，無陵轢上人之意。勤儉守道，以爲子孫瞻。如是則可以久保其福也。”

나뉘 함께 짓는다. 만약 순박해서 시 읊조리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만 해맑은 이야기와 우아한 해학으로 자리를 끝마쳐도 나쁠 것이 없다. 배를 띄우게 되면 노래하는 아이 몇이 있어 술 따르고 회를 쳐서 내오게 해도 괜찮다. 이처럼 소요하며 즐긴다면 절로 마음을 기르고 성품을 길러 풍류운사(風流韻事)가 됨을 잃지 않으리라. 품석정 주인이 다산에서 쓴다.²³⁾

다산초당 주변의 계절에 따른 12경을 꼽고, 놀이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이신양성(頤神養性)하는 풍류운사(風流韻事)의 운치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 술과 안주와 음악을 곁들이고, 시 짓는 벗들과 동반하여 노닐되, 시 짓기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즐거운 담소 만으로 자리를 마쳐도 좋다고 했다.

다산이 이상주거론을 피력하는 자리에서, 여타 의원(意園)류 산문들이 보여주는 관념적 유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가계 경영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 추구에 머무는 대신, 삶 자체가 상심락사의 고상한 운치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대단히 흥미할 만하다.

23) 정약용, 「다산십이경서」: “張南湖賞心樂事, 非寒士所能. 然仿像裁損, 求其趣而不慕其奢, 未始爲不可能也. 蚤春梅花旣綻, 葵芸閑嗅梅會, 爲第一芳燕也. 第二聚星齋觀紅桃. 第三迎風塢賞牡丹. 第四蔓香壇看繡毯花. 第五卮子園賞芍藥. 第六枯查谷觀新笋. 第七栗浦前港觀打魚. 第八越姑池泛月. 第九白蓮寺觀丹楓. 第十石門臨清泉. 第十一合掌菴賞雪. 第十二水精寺觀凍竹. 每次必略具微燾, 酒止數行, 絲竹止短琴洞簫. 賓朋有善爲詩律者, 分韻共賦. 若淳朴不喜呻吟者, 唯清譚雅謔以終席, 亦無傷也. 至於泛舟, 則有歌兒數人, 使之行酒斫鱸, 亦可也. 如是消搖爲歡, 自可頤神養性, 不失爲風流韻事也. 品石亭主人, 書于茶山.” 이 글에는 따로 제목이 없다. 역시 『다산시문집』에 누락된 일문이다. 개인소장으로 다산친필이 전한다. 이 글 또한 강진군에서 간행한 다산 종합도록 『다산 정약용, 마파람이 바다 위에 불어』(2009, 강진군), 74~75쪽에 원본의 영인이 수록되어 있다. 도록에서는 끝의 서명에서 따와 「품석정서(品石亭序)」라고 했는데, 품석정은 강진에 있지 않고 초전에 있던 농막이므로 올바른 명칭이 아니다. 이에 내용을 참작하여 「다산십이경서」로 붙여 보았다.

4. 결론

이상 다산 정약용의 이상적 주거에 관한 생각을 담은 몇 편 글을 엮어 읽기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18세기 도시화의 진전 속에서 이상적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져갔고, 당시 문인들은 직접 원림을 가꾸고 정원을 조성하며, 그도 어려울 때는 상상 속의 정원을 꿈꾸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상적 생활 모델을 제시했다.

다산 또한 여러 편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꿈꾼 이상적 삶의 모델을 구체적인 공간 설정을 통해 제안하였다. 공간의 구성이 주거의 입지와 내부 및 주변 구성, 외곽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실제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속에서의 경제활동과 생활 방식 또한 실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산의 이상주거론은 벼슬을 떠난 사족의 자족적 생활공간의 구체적 모델을 제안했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한 공간 배치에 그치지 않고, 원포 경영을 통한 경제 생활과 생활 속에 학문과 예술을 통해 운치를 갖들이는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자족적 경제생활을 중시하고, 그 세목을 제시한 점이 다른 이상주거론에서는 찾기 어려운 대목이다.

다산은 이러한 자신의 이상주거론을 실제 자신의 강진 유배기간 동안 다산초당의 경영으로 구체화하였다. 또 해매 이후에는 초천의 여유당과 주변 원포의 경영으로 실천되었다. 경제활동과 문인 아취(雅趣)가 이상적 조화를 이룬 주거론의 제시는 오늘날 웰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목하고 음미할만한 점이 적지 않다.

한편 다산이 제시한 이상주거론의 모델은 다산초당에 그치지 않고, 제자인 황상(黃裳)의 일속산방(一粟山房)과 초의(艸衣)의 일지암(一枝菴)으로 확산되어, 조선 후기 호남 원림의 한 이상적 모델로까지 승화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따로 살펴볼 작정이다.

■ 참고문헌

- 강진군, 『다산 정약용, 마파람이 바다 위에 불어』, 강진군, 2009.
- 안대회, 『18, 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 『진단학보』 제 97호, 진단학회, 2004.6, 111~138면.
- 정민, 『18, 19세기 문인지식인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회, 2005.6, 35~77면.
- ____, 『다산의 초당경영과 공간구성』, 『문헌과해석』 39호, 문헌과해석사, 2007.여름호, 13~32면.
- ____, 『새로 찾은 다산의 산거잡영 24수』, 『문헌과해석』 42호, 문헌과해석사, 2008.봄호, 11~28면.
- ____, 『다산의 평생구학론』, 『다산학』, 다산학술문화재단, 2009.12, 81~110면.
-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 서울출판사, 1996.

Dasan Jung Yakyong's Theory of Ideal Residence

Jung Min*

This paper focused on *Dasan's* thought on ideal residence through his several writings. Arguments about ideal spatial construction of residence were spreaded like a fad in 18, 19 century at *Chosun*. It was a current of well-being pursui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How should resident space and surroundings of literary men be constructed? *Dasan* had expressed his conceptions on ideal residence in his writings repeatedly. He had devoted to cultivate and decorate his residence of not only small house in Seoul but also house in the place of exile. He left concrete remarks on a suitable arrangement and state of residence, the interior disposition of house, its surroundings, and the constitution of circumferences.

First, this paper researched the intellectuals' theory types of ideal residence in the late *Chosun*. The shapes of ideal space of ideal residence, which they had dreamed, were actualized into varied types in their reality and imagination. The points were condensed into a breakaway from the complicated routine, the intimate life with nature and the groping mental space, etc.

In these contexts, *Dasan* showed his theory of ideal residence in several writings. He introduced the concrete and realizable space constitution such as

* A Professor i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of Hanyang University

position fixing, constitution of interior, and even surroundings and outlines. Also he proposed a very practical direction on managing daily routine and family budget in the living space. *Dasan's* theory of ideal residence didn't stop at the ideological theories like other intellectuals, but possessed the economic self-sufficiency which can surely be called as the self-sufficient residence theory.

Key Words: Dasan, Ideal Residence, Yuinchup, Yukeoron, The self-sufficient residence